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2. 1.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전략적 중요성	1
1. 전략적 중요성	1
2. 개발협력 수요	2
3. ODA 추진 SWOT 분석	3
II. 수원국 분석	5
1. 국가개발전략	5
2. 수원체제	6
3. 수원국 거시분석	7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9
1. 기본 방향	9
2. 분야별 수요 분석	11
3. 분야별 지원 방안	15
4. 이행점검방안	19
IV. 이행전략	21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24
1. 모니터링 방안	24
2. 평가계획	25

I. 전략적 중요성

1 전략적 중요성

- (높은 성장세) 고도 경제성장 속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에도 '20년 3%대 GDP 성장 달성 및 '21년 4% 성장 예상
 - * GDP성장률(IMF) : ('17년) 7.3% → ('18년) 7.9% → ('19년) 8.2% → (20년) 3.8%
-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사회지표 개선으로 최빈국(LDC) 졸업이 가시화 되는 등 동국 최우선 목표인 '빈곤감소·포용성장' 가속화 기대
- (지정학적 중요성) 중국, 인도 등 주요 인접국과의 접근성과 벵골만을 통한 해상 연결성 등을 활용, 서남아지역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 가능
 - 지정학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일본의 '벵골만 산업벨트 이니셔티브' 등 주요 강대국 개발계획의 거점으로 급부상
- (풍부한 협력규모) 우리 ODA의 중점협력국이자 주요 교역파트너로 대두되는 등 향후 아국과의 협력 규모 확대 가능성 풍부
 - '10년 이후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 지원실적은 6.8억불(순지출) 수준으로 양자 협력국 중 상위 3위에 해당되며,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20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 양국간 수출입규모 추이(관세청) : ('17년) 15.6억불 → ('18년) 15.8억불 → ('19년) 16.8억불

- (교육) 방글라데시는 성인 문맹률 감소, 기본교육 확대 등 기존 교육 분야 개발성과에 이어,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강화 및 ICT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주력 추진 중
 - 이에,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수립, ICT를 활용한 교육인프라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높은 상황
- (에너지·교통) 고도 경제성장 속 경제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특히 발전소 신설 및 송전망 개선 등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간 물류, 교통 연결성 확대를 위한 대형 교통인프라 개발을 중점 추진
 - 방글라데시의 개발계획인 「제8차 5개년 계획」 상 에너지·교통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등 향후 원조자금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보건·사회보호) '방' 정부는 공공보건시스템 구축,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개발계획 상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하는 등 노력중
 - 의료시설 및 전문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고용 안정 및 금융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투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관련 개발수요 확대 예상
- (수자원 및 위생) '방' 정부는 '방글라데시 델타 계획 2100*' 수립 등 깨끗한 물공급 및 수자원 관리, 폐기물 처리를 통한 위생환경 개선을 최우선 분야로서 추진 중

* **Bangladesh Delta Plan 2100** : '18년 수립된 방글라데시 정부의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적응 전략으로, 침수 및 홍수 예방, 물공급 환경 개선, 친환경시스템 강화 등에 집중

-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처리 기술 등 친환경 기술(K-그린) 확산을 통한 개발협력 활성화 기대
- (ICT) '방' 정부는 공공행정, 의료, 교육 등 범분야에 적용되는 ICT 확산을 위한 '디지털 방글라데시 전략*'를 공표하고 전산시스템 통합 등 인프라 개발 및 정부 정책 수립을 촉진 중
 - * **Digital Bangladesh** : '09년 발효되어 ICT 환경 확대를 통한 국민 생산성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발표된 '방'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
- ICT 부문에 대한 높은 개발수요로 인해 한국의 디지털 정부 성공사례 전파 등 우리 ICT 부문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 활성화 기대

3 ODA 추진 SWOT 분석

□ 한국 對 방글라데시 관계

- (외교관계) 1973. 12. 18자 수교
- (주요 협정체결) 무역경제협력협정('73), 이중과제방지조약('83), 투자보장협정('86), 과학기술협력협정('9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04), 무상원조협정('14) 등
- 對 방글라데시 교역·투자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출	12.76	12.38	12.82	10.33
수 입	2.86	3.47	4.05	3.93
무역수지	9.90	8.91	8.78	6.40
ODA(순지출)	0.34	0.69	0.99	1.02

(출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ODA 통계)

- '17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방 교역규모는 평균 15억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DA 지원액 역시 확대 추이에 있음

□ 對 방글라데시 ODA SWOT 분석(지원시 고려사항)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협력국으로서 우리정부의 높은 원조 집중도 □ 안정된 정치 및 고도 경제성장 지속 등 정치·경제 구조 양호 □ 중점분야(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등)에 대한 비교우위 보유 □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인프라 환경 보유 □ 취약한 세수기반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등이 공공지출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득국 진입 본격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및 해외투자 유입 확대 예상 □ 주요 강대국의 대외정책 관련 지정학적 입지 활용 가능 □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 전략 추진 등 아국 중점분야(ICT(범분야) 및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개발협력 수요 □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 민관협력(PPP) 시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빈국 졸업시 관세, 무역 혜택폐지 등에 따른 단기적 영향 불가피 □ 난민송환 문제 등 인근국과의 불안정한 정치 관계 지속 □ 아국 원조 지원시 통관문제 및 사업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원조효과성 저하 우려 □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펀더멘털 약화에 따라 원조사업 지연 가능성 상존

II. 수원국 분석

1 국가개발전략

□ 제8차 5개년 개발계획

- 방글라데시는 독립 70주년인 '41년 고소득국가 진입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 장기계획 2041(Perspective Plan 2041)”을 수립
 - 중기 실행계획인 “5개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동 계획을 구체화
- 방글라데시는 제7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제8차 5개년 계획(8th Five Year Plan, FY'21-'25)을 수립·이행 중
 - 동 계획은 “경제번영 촉진 및 포용적 성장 확대(Promoting Prosperity and Fostering Inclusiveness)”를 기치로 하여, Perspective Plan 2041 상 3대 국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빈곤감소 및 포용성장을 추구
 - * ①FY31 상위중소득국(UMIC) 도달, ②FY31 절대빈곤 종식, ③FY41 고소득국(HIC) 도달
- 특히, 방글라데시는 동 5개년 계획상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 및 고용 확대 등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빈곤 감소·포용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

< 빈곤감소·포용성장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 >

- ◇ 노동집약·수출중심 제조업 육성
- ◇ 농산업 다변화 실현
- ◇ 소기업 역동성 강화
- ◇ 서비스업 강화
- ◇ 관광 등 비요소 서비스업(non-factor service) 확대
- ◇ ICT 기반 창업 환경 증진
- ◇ 해외취업 강화

2

수원체계

□ 수원체계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대외협력청**(Economic Relations Division, ERD)이 對원조기관 협력을 전담하는 **수원총괄기관**으로 양·다자 공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 중
- **원조조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외협력국은 산하 개발 효과 부서(Development Effectiveness Unit)를 설치하여 기관 간 수원업무 조정

□ 공여국 협력 체계

- 공여국 정부·공여기관·방글라데시 정부 간 협의체인 **현지컨설턴트 그룹**(Local Consultative Group, LCG) 설치 및 운영 중
- 방글라데시 대외협력국장(ERD Secretary) 및 공여국·기관 대표가 LCG 의장직을 공동 수임
- 빈곤·교육·보건·ICT·환경·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 등 **18개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 중으로, 현재 **50여개 원조기관**이 참여 중

* 상임이사: UN, ADB, WB

** 임시이사: 매년 순차적 선정

< 방글라데시 정부 - 공여국 및 기관 간 협력 체계 >



자료: Aid Effectiveness Unit(2013)

□ 신용위험

- (외환보유) '20년 이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해외송금액 및 원조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지속 증가 추세
- (외채현황) 정부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외채로 보전하는 구조로 외채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 중
 - 또한 외채 대부분이 장기의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외채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채구조 측면은 양호
- (외채상환) OECD 회원국 ECA 금융지원액의 연체율이 미미*하며 '07년 이후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는 등 전반적 외채상환 태도가 양호
 - * OECD ECA 지원액 연체율('20.3월말) : 약 0.38% 수준
- (국가신용등급) '15년도 OECD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6→5등급 ('15.6월)) 이후 현재까지 유지중

<주요 기관의 국별신용등급 현황 >

구 분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5등급 (2021.6월)	5등급 (2020.6월)
Moody's	Ba3 (2021.4월)	Ba3 (2020.3월)
S&P	BB- (2020.8월)	BB- (2019.5월)
Fitch	BB- (2020.11월)	BB- (2020.11월)

□ 재정건전성 관리능력

- (경제성장)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6% 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유사 경제규모의 타 국가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중
 -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상품 수출 등이 회복되며 '21년도에는 경제성장률 4%대 상승이 전망되는 등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 충격 등으로부터 완만하게 회복 중

- (경상수지) 주요 원부자재 및 민간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조자금 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중
- (재정수지) 빠른 경제성장에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및 비효율적 세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약 9%에 불과
-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 삭감, 대외차입 등에 의존하여 적자를 보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재정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노력 중

<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7.3	7.9	8.2	3.8	4.4
재정수지/GDP	%	△3.3	△4.6	△5.4	△6.8	△6.1
경상수지	백만 달러	△5,985	△7,095	△3,434	△840	△2,695
경상수지/GDP	%	△2.4	△2.6	△1.1	△0.3	△0.8
상품수지	백만 달러	△12,966	△17,284	△15,912	△12,924	△13,739
수출	백만 달러	35,301	38,682	38,759	30,813	37,346
수입	백만 달러	48,267	55,966	54,671	43,737	51,08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31,289	29,973	30,648	35,690	36,190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54,737	60,356	70,340	77,016	80,079
총외채잔액/GDP	%	21.9	23.2	21.4	21.5	21.2
단기외채	백만 달러	13,579	15,733	15,733	15,733	-
외채상환액/총수출	%	6.0	7.1	7.1	8.9	8.3

* 2020년 수치는 추정치,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1 세계국가편람

□ 정치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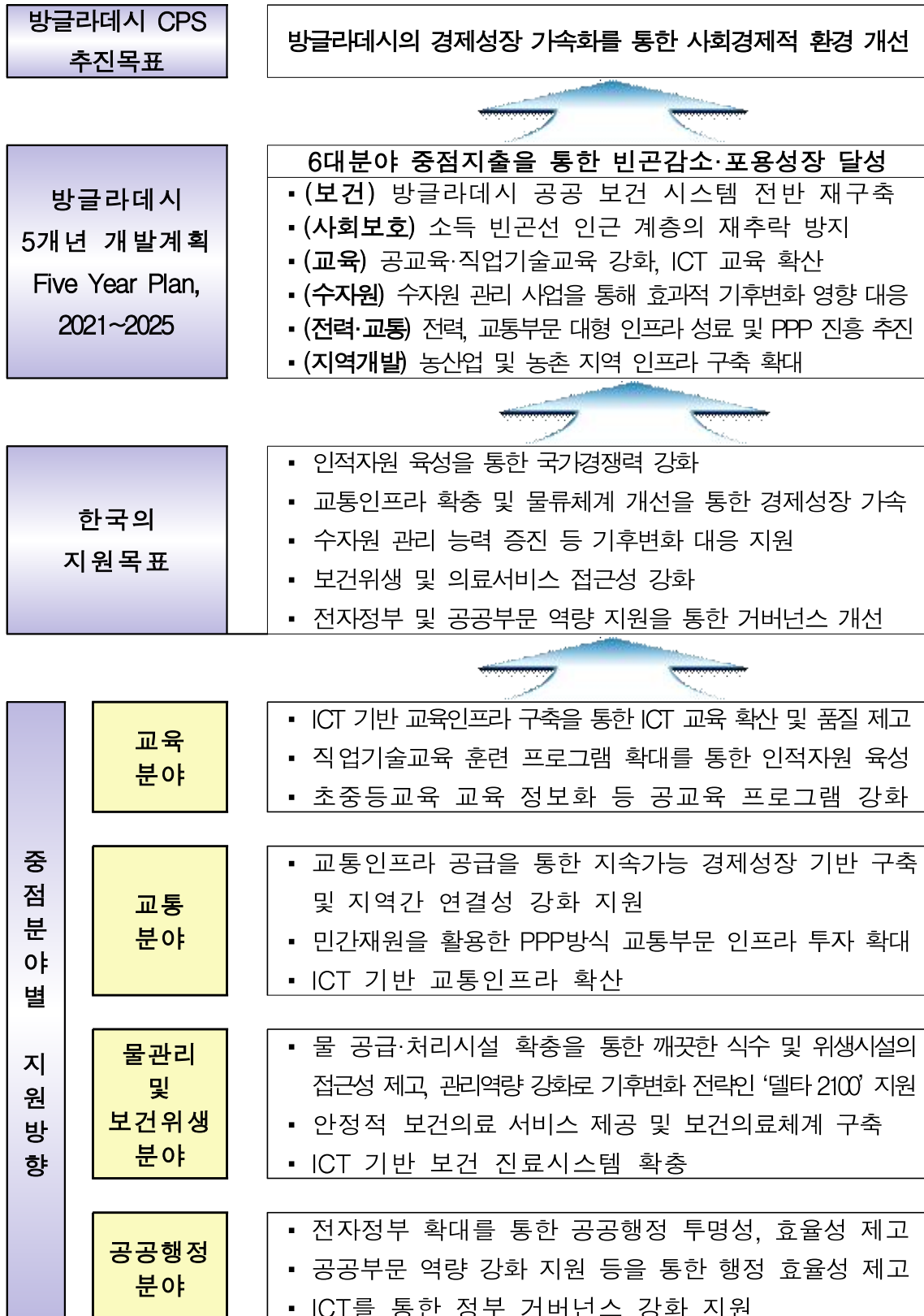
- (국내상황)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합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현 여당 장기 집권이 전망되는 등 역내 정치상황은 비교적 안정적

* 아와미 연합은 '09년 집권 이후 '13 및 '18년 총선시 하시나 총리의 연임에 성공하며 '23년말까지 집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국제관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실리주의 외교 노선 견지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 (지원 목표) 방글라데시의 국가발전 장기계획 2041(Perspective Plan '41) 및 제8차 5개년 계획(8th Five Year Plan, FY '21-'25) 달성 지원, '경제 번영 촉진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

□ (중점협력 분야 및 선정사유)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계획,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경험, 기회·장애요소, 예상 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공동협력, 분야 간 연계성을 고려

→ 중점협력 4개 분야를 선정

○ (교육) 진학을 등 기초·고등교육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직업 교육 체계 현대화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직업기술 교육 제공을 통한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

→ ICT 기반의 교육시설 및 양질의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방' 개발계획 상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 목표 달성 지원

○ (교통) 고도성장세 속에도 미흡한 교통인프라 여건이 민간자본 유치, 해외기업의 시장진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동국의 지속 가능 경제성장의 걸림돌으로 작용

→ 철도·도로 인프라 및 ICT 접목 교통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PPP 방식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대형 교통인프라 추진을 통해 '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전략 지원 필요

○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고도성장에 따른 기후 영향 심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시설 부족 및 의료보험 제도 미비 등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의료지원 체계 보완 필요

→ 수자원관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 델타계획 2100”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CT를 접목한 전문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분야 인력 역량 강화가 필수적

○ (공공행정) 행정체계의 효율성·투명성 제고가 외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 달성 등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

→ 아국의 디지털정부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ICT를 활용한 전자정부 분야 사업추진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원 필요

2 분야별 수요 분석

(1) 교육 분야

□ 개발수요

- 방글라데시는 초·중·고등교육 의무화, 문맹 퇴치, 과학기술교육 고도화 등을 통한 인간개발지수 향상 및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추진 중
- 특히, 방글라데시는 인적자원 양성체계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인력을 각 산업부문에 공급하고, 여성 및 소외지역내 교육기회 보장 및 취업을 제고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방향으로 상정 중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국내 실업문제 해소 및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취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숙련 기술근로자 양성에 큰 관심을 표명 중
- * '20년 방글라데시의 해외송금액은 동 기간 GDP의 6.6% 수준인 217.5억불에 육박, 방글라데시 경제성장의 주축이자 주요 외자 유입 경로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봇, 인공지능 등 ICT 관련 고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존재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업훈련모델 개발, ▲자동차·엔지니어링·전기/전자·ICT 등 분야 직업교육훈련 등에 강점 보유
- 특히 최근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제조업체 등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직업교육-취업 간 연계기반 또한 확대 예상

[2] 교통 분야

□ 개발수요

-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역**으로, 네팔·부탄 등 주변 내륙국의 **해양관문** 및 인도-인도차이나 반도의 **육로 연결경로**로서 **잠재력**을 보유
 - 이에, 방글라데시는 역내 주변국과의 **교통 연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남아시아 경제협력회랑(SASEC)*** 구축계획 下 철도·항공 등 개선을 통한 남아시아 **교통·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

*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rridor

- 한편, 다카 및 치타공 등 주요 도시 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 및 **체계적 교통인프라**의 부재가 경제성장 가속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방글라데시는 도로·철도시설 정비 및 도시철도 신설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교통량 확대에 부응하며 정시성·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중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체계적·단계적 국토개발계획의 수립·이행으로 교통수단 간 상호 연계성을 담보하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체계** 구축 경험을 보유
 - 특히, 지능형교통체계, 도시·국가철도 신호제어 체계, 항만물류 정보체계 등 기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ICT 시스템** 관련 **비교우위** 보유
- 한편, 최근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이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 확대**로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

(3)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개발수요

-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계기, 물관리·보건위생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담보하는 사회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상정
- (물관리) 안전한 생활·산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공급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제조업 등 산업의 성장여건 및 환경 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추진
 - 특히, “방글라데시 델타계획 2100”의 일환으로 물공급 및 처리 능력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을 추진중
- (보건의료)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보건 체계의 만성적 문제점이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편

□ 한국의 원조역량

- (물관리) 한국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한 수자원 개발·관리 경험 보유
 - 특히, 세계적 수준의 수자원 관리기술·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해외 수자원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
- (보건의료) 한국은 선진·체계적 병원시스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 지역 보건의료 체계 등 공공보건 체계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Pool을 보유한 비교우위 보유
 - ‘20년 코로나 대유행 직후 아국의 선진 방역 프로그램을 활용, 방글라데시 앞 방역대응 예산 차관 및 무상 의료기자재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재국의 팬데믹 대응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

[4] 공공행정 분야

□ 개발수요

- 방글라데시는 공공행정의 질적 제고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
 - 정부행정시스템의 표준화·전산화 및 디지털 대국민 행정서비스 구축 등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정하고 인공지능, 로봇, 쿼텀 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조
 - 이에, 'Digital Bangladesh'라는 표어 下 부처별 행정서비스 전산화 시도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시스템 간 중복투자를 막는 체계적 개발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지적정보 등 공간정보와 납세·통관 정보 등의 전산화 부재 등 공공행정 분야 개선 필요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세계적 정보통신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전자행정시스템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전자정부시스템 강국으로 성장
 - 특히, 지적·공간정보시스템, 관세·통관시스템, 과세·납세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고도화는 물론 행정체계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이룩한 경험 보유

(1) 교육 분야

□ 기본방향

- 산업인력 양성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체계 강화** 지원 및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 추진
 - 특히, 직업훈련 분야 유·무상 협력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의 노동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설계로 호혜적 지원성과 창출
- 한편, 농촌 등 소외지역, 여성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권리 보장 및 빈곤감소 실현
 - 특히,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ICT 교육** 지원을 통하여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직업훈련체계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업 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교육 기자재 보급**,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기술 역량·자격 인증체계 구축**, **교사 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
- 소외계층 교육체계 강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ICT 교육훈련센터** 현대화 및 신축, **초·중·고교 ICT 교육 기자재** 지원, 지역 교육시설 교사 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
 - 특히, 지역 간 교육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커뮤니티 강화 지원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한 NGO** 등과의 협력방안 적극 모색

[2] 교통 분야

□ 기본방향

- 철도·도로·항만 등 시설투자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방글라데시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교통수단 간 상호 연계성 담보를 위한 전략교통계획 수립·제도개선을 지원
-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교통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사업발굴을 활성화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교통 부문 민간투자사업 성사를 적극 지원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의 양적·질적 개선에 기여
 - 주요 국가교량 및 지능형 철도·도로 신호 제어체계 등 구축 지원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저비용·고효율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
- 다카·치타공 등 주요 도시의 전략교통계획 수립 지원 및 국가교통 관리 담당 인력 역량강화 사업 추진
- 한-방간 G2G PPP 협력채널을 통해 논의 중인 교통분야 PPP 사업에 대해 사업 전 단계에 있어 유무상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 구도 확보 및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동력 제고

(3)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기본방향

- (물관리)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실현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홍수 등 재해에 대응하는 재난 대응체계 수립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 (보건의료) 보건의료시설의 개선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한 공공보건체계 고도화, 정책개선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물관리)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및 확장, 물관리 부문 교육연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물관리 역량 강화 기여
 - 주요 주거·산업지구를 우선순위로 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원
 - 상하수도 체계 고도화 및 수질 관리 연구시설 건설,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설관리 기술교육 등 수자원 관리 담당인력 대상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과정 구축 등을 지원
 -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자문 제공
- (보건의료)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기여
 -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확장 및 최신 의료기자재 보급 지원,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설립 및 교육역량 강화, 지역단위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등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의료접근성 취약지역 대상 감염병·취약질병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 진찰 및 분만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하여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

[4] 공공행정 분야

□ 기본방향

- 방글라데시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고도화·전산화, 전자정부 시현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투명성, 이용 편의성 제고 기여
- 방 정부의 관심 분야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가능 사업도 발굴 추진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전자정부(e-Governance)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과 연계,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처리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전산화 도입·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 지적·공간정보, 관세·통관, 과세·납세, 사이버 수사, 재난관리 등 세부 공공행정 분야별 정보화 정도 분석 및 고도화된 전자행정 시스템·대국민 행정서비스시스템 구축 지원 등 추진
-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자정부 구축의 필요성·이점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를 위하여 교육 훈련,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 추진

4

이행점검방안

수원국 개발목표(방글라데시 국가개발전략)

: FY31 상위중소득국(UMIC) 도달 및 절대빈곤 종식 및 FY41 고소득국(HIC) 도달

CPS 목표

: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 가속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 및 직업 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 (SDGs 4.3) 남녀 모두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고등교육 접근 제공 - (SDGs 4.4)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및 교육인프라 부족 ○ 교육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술교육 및 ICT 관련 교육역량 강화 ○ 교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인프라 수 ○ 직업기술 교육인프라 수 ○ 직업기술 교육인프라 수 ○ 교육인프라 수 ○ 개발/개정된 교육과정 및 교보재 수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종합적 교통계획 수립 및 지역간 연결성 향상 - (SDGs 11.2)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및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도로안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인프라 부족 ○ 도시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환경 개선 및 종합적 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관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이용객 및 화물 운송량 증가 ○ 지역간 이동 시간 단축, 철도교통신호 시스템 정시성 개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공급 및 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 (SDGs 6.1)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공평한 접근 제공 - (SDGs 13.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적응능력 강화 ○ 공공보건체계 고도화를 통한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 (SDGs 3.3)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 열대 질환 등의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 퇴치 - (SDGs 3.8)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약품·백신 등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 보건위생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및 연구체계 수립 ○ 의료시설 및 보건인력 강화를 통한 환경 보건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보급률 및 위생도 증가율 ○ 침수 및 홍수 피해 감소율 ○ 의료시설 구축 수 및 의료인력 양성 수 ○ 전염병 및 질환 환자 감소

<p>공공행정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SDGs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정정보 (공간정보, 납세정보 등) 전산화구현 부재 ○ ICT 인프라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기능 확대 ○ ICT 시스템 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 서비스 실시 ○ 정부통합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처리율 개선 ○ 공공기관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수 ○ 디지털 공공시스템 이용자수 ○ 업무처리 시간 단축율
--------------------	---	--	---	---

IV. 이행전략

□ 타 공여주체와의 원조조화

- 수원총괄기관-원조기관 간 협의체인 LCG,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우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발굴
- 국내·외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및 연계사업 발굴

□ 유·무상 연계 강화

- 유·무상 추진사업 간 협력을 넘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정보를 적기 공유함으로써 개발조사 - 프로젝트 - 기술협력 - 초청/현지연수 -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사업 간 연계가능성 검토 및 패키지 지원 추진
- 현지 ODA 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한 유·무상 사업 추진 담당 부처·기관 간 협의 정례화

□ 정책부합성 제고

- (그린뉴딜) 우리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확대
 - － ▲ 온실가스 저감, ▲ 기후적응력 향상, ▲ 교차(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 (디지털 뉴딜) 우리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방글라데시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방글라데시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 － ▲ 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 ▲ 교육, 보건·의료, 교통 등 주요 분야에 ICT 융합 확대, ▲ 경제·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 등

□ 민관협력 활성화

- 대형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글라데시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노력에 맞추어,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지원 노력 전개

-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위기, 사회개발부문 앞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교통부문 등 경제개발부문의 경우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 중
- 한편, 방글라데시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은 주로 통신·전력 부문에 국한되어 있어,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원조기관들의 정책 자문·기술/금융협력 등 지원이 긴요
- 지역사회 지원기반 확대 등을 위하여 NGO,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현지 개발연대 강화

□ 원조일치

-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한 협력활동 수행
 - Perspective Plan 2041, 제8차 5개년 계획 등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예산안 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현지 수요에 맞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 양국 정부 간 정책협의 및 실무자 간 논의 등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정책기조 및 개발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성 있는 접근체계 구축으로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 2015년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방글라데시의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
 - 기존 추진사업의 분야·방식·체계 전반에 SDGs 기본정신을 반영하는 등 모든 협력사업의 SDGs 주류화를 위한 정비활동을 지속
 - SDGs 맥락에서 선포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을 국별 맥락에 맞추어 이행하는 등 우리 ODA 정책의 SDGs 달성에 기여
- SDGs의 “Leave No One Behind” 정신을 고려, ODA 사업 전반에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모든 형태의 차별 해소 노력을 증진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리스크 매트릭스 >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상황 발생 시
2.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 ○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황 발생 시
3. 취약한 시장경제제도로 인한 거시 경제적 불안	○ 주요 경제 제도 변경 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황 발생 시
4. 최빈국지위 졸업절차 개시에 따른 내부환경 변화 및 거시 경제적 불안	○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적시 투입 ○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경제, 대외교역 지표에 따른 영향 등)	상황 발생 시
5. 전염병 발생	○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황 발생 시
6.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상황 발생 시
7.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 ○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반기별

2

평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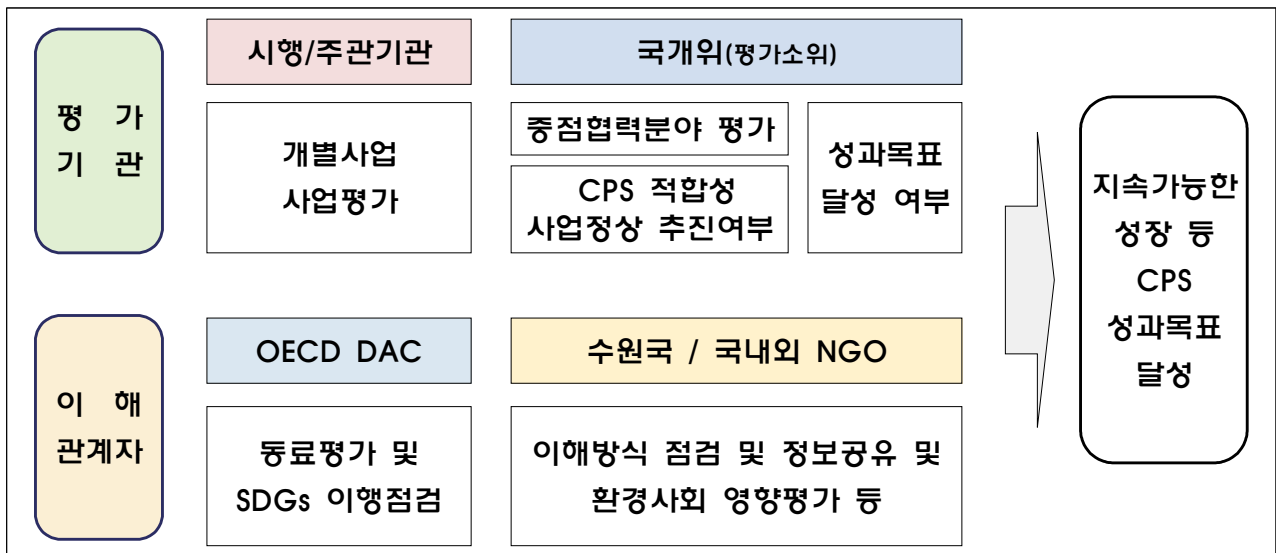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지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지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1 지원 현황

□ (총괄)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 제3위* 중점협력국으로 지난 10년간 총 5,957억원 원조 제공

* '10 ~ '20년 기준 1위 베트남, 2위 캄보디아 (자료 : ODA 통합정보포털)

- 유상원조 비율이 전체 지원액의 74%를 차지
- 주요 시행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74%), KOICA(21%), 외교부(3%), 교육부(1%) 순이며, 상기 4개 기관이 전체 지원액의 99%를 차지1)

< 한국의 對 방글라데시 ODA 지원 규모 추이('09 ~ '18) >

(단위 : 백만 원)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통합정보포털

□ (중점분야) '16~'18년 對방 지원 총액 중 중점협력분야 지원 비중은 77%2)

- 분야별 지원 비중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47%), ▲교통(22%), ▲교육(7%), ▲통신(2%) 순

*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 : 3%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 국가협력전략 종료평가 연구용역('20.12) p.41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 국가협력전략 종료평가 연구용역('20.12) p.45

□ 일 반

-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하고 남동부 지역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8위(아시아 5위) 인구대국으로 소득수준 향상시 내수시장 성장 등 경제잠재력 보유

□ 정 치

- '18년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의 압도적인 승리로 '23년까지 하시나 총리의 집권이 예정되어 있어 정국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황
 - 하시나 총리의 아와미 연맹과 칼레다 지아 당수의 국민당(BNP)의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칼레다 지아 당수가 부패혐의로 입건('18.2월)됨에 따라 대표 야당인 국민당 세력기반 약화
-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 가능성 존재

□ 사 회

- 미얀마 정부와 합의한 로힝야족* 송환 시도가 거듭 지연됨에 따라 난민 수용에 따른 '방'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³⁾

* '17년 미얀마 군·경의 진압 작전에 따라 약 38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이전 유입 로힝야족 합산시 총 70만명 규모)

** UN 난민기구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로의 송환 실패시 최초 5년간 난민 수용비용은 70억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한국수출입은행(2020),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21

□ 경 제

- (경제규모)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19년 총 GDP 3,025억 달러, 1인당 GDP 1,816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
 - '18년 1인당 GNI 1,274달러를 기록하는 등 UN 최빈국 졸업요건 달성
- (경제성장률) 안정적인 정치 상황, 의류 수출액 증가, 민간소비 및 인프라 투자 증대에 힘입어 '09년 이후 5~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으나, '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3~5%대 전망
 - * ('09~'10년) 5%대 → ('11~'15년) 6%대 → ('16년~'18년) 7%대 → ('19년) 8%대
 - '21년에는 경기 부양책 및 백신 보급 확대 등에 기반한 소비심리 회복, 핵심인프라 사업추진에 따른 건설 경기 호조로 4~6%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 예상
- (재정수지) 취약한 세수기반*, 낙후된 징세 시스템 등으로 GDP 대비 조세수입은 9% 수준에 불과하며, 재정수입이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목표 : GDP의 5% 이내) 관리
 - *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자 수가 440만 명(총 노동인구의 6.9%) 수준
 - 단,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관련 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년 △5.4%를 기록하였으며, '20년 및 '21년 재정적자 비중이 확대되어 각각 △6.8%, △6.1%에 달할 전망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억 달러	2,497	2,740	3,025	3,178	3,384
1인당 GDP	달러	1,530	1,662	1,816	1,888	1,990
경제성장률	%	7.3	7.9	8.2	3.8	4.4
재정수지/GDP	%	△3.3	△4.6	△5.4	△6.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5.4	5.8	5.5	5.6	5.9
정부채무/GDP	%	13.7	14.9	14.9	16.0	15.8

* 2020년 수치는 추정치,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0), 2021 세계국가편람

- (경상수지)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저부가가치 의류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구조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원자재 수입 등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의류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에 영향을 받으며 3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
 - 다만, '20년 해외근로자 송금액·국제 원조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한 357억 달러 기록
- (외채현황) 해외원조자금을 이용한 재정적자 보전으로 외채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 수준 유지
 -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 코로나 19 대응 등을 위한 원조자금 유입 증가세 등을 고려시 외화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7년) 43.4% → ('18년) 52.5% → ('19년) 51.3% → ('20년) 44.1%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환율(달러당, 연중)	Tk	80.4	83.5	84.5	84.9	86.2
경상수지	백만 달러	△5,985	△7,095	△3,434	△840	△2,695
경상수지/GDP	%	△2.4	△2.6	△1.1	△0.3	△0.8
상품수지	백만 달러	△12,966	△17,284	△15,912	△12,924	△13,73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31,289	29,973	30,648	35,690	36,190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54,737	63,506	64,672	68,349	71,658
총외채잔액/GDP	%	21.9	23.2	21.4	21.5	21.2
단기외채	백만 달러	13,579	15,733	15,733	15,733	N/A
외채상환액/총수출	%	6.0	7.1	7.1	8.9	8.3

주: 2020년 수치는 추정치,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1 세계국가편람

- (국가신용) OECD는 '15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글로벌 의류업체의 지속적인 투자 등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상향 조정(6등급→5등급)한 뒤 5등급 유지중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의 투자부적격 등급(BB-, Ba3)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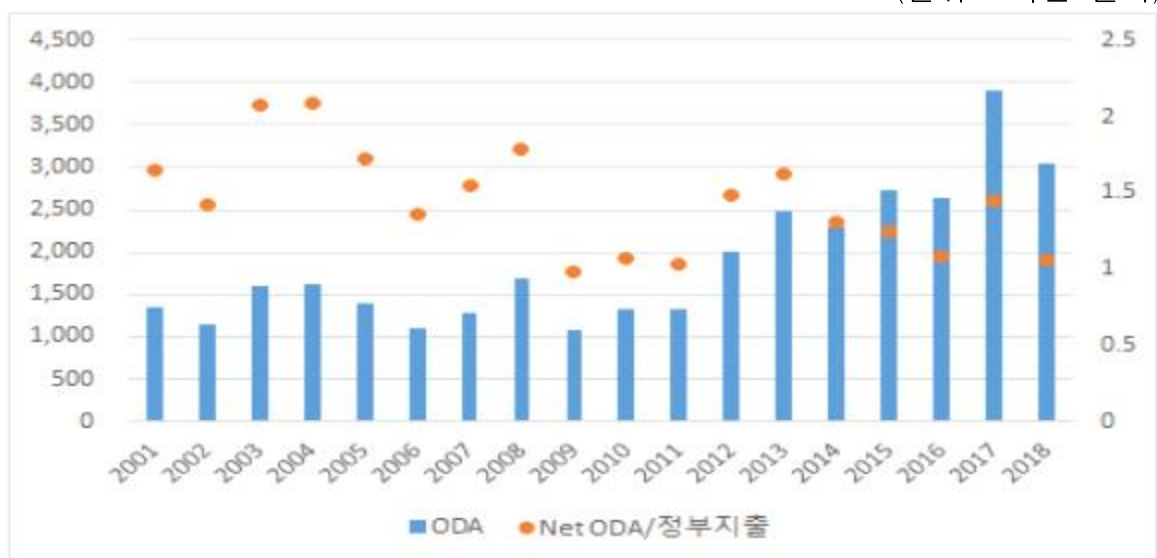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수원 현황

- 방글라데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원조 확대로 ODA 수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정부 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등 ODA에 대한 국가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

<방글라데시의 ODA 수원 현황>⁴⁾

(단위 : 백만 달러)



주 :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최근 5년간('15~'19년) 국제사회의 방글라데시 지원총액은 약 216억 달러이며, 양자 및 다자 지원 비율은 49.5%, 50.5%로 비슷한 수준이나 '17년 이후 양자지원이 다자지원 규모 상회

<방글라데시의 ODA 수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계(비율)
양자	1,384	1,482	2,442	2,646	2,737	10,691(49.5%)
DAC 회원국	1,346	1,378	2,371	2,497	2,668	10,260(47.5%)
다자	1,829	1,817	2,125	2,465	2,658	10,894(50.5%)
전체	3,213	3,299	4,566	5,111	5,395	21,584(100.0%)

자료: OECD.Stats (총지출액 및 명목가격(Current Price) 기준)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 국가협력전략 종료평가 연구용역('20.12) p.35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주요 공여국·기관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교육·보건제도 강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 기후 및 환경관리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 주요 공여국·기관의 방글라데시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

공여국/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세계은행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Bangladesh (FY16-FY20)	1.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 2. 사회적 포용 3. 기후 및 환경관리
일본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Bangladesh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중진국 진입 2. 사회적 불안전성 극복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	1. 정책수립 지원을 통한 개발 제한요소 완화 2. 민간기업 투자환경 조성 3. 노동 질과 생산성 강화 4. 농업 생산성 향상 5. 환경·기후 변화 대응
미국	Bangladesh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USaID, FY11-FY19)	1.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2. 식량 안보 개선 3. 보건 상태 개선 4. 기후변화대응 개선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2). Japan's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Bangladesh
World Bank(2016).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Bangladesh for the Period FY16-FY20
ADB(2016).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Bangladesh 2016-2020.
USAID(2011) Bangladesh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Y2011-FY2019

- 주요 공여국(기관)은 세계은행(30.6%), 일본(23.20%), ADB(9.2%), 미국(7.0%) 순이며, 이들은 '15~'19년 중 전체 ODA 총액의 약 70%를 차지
- 우리나라는 총지출액 기준 제10위 공여국
- 단일국 기준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17년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

<방글라데시 상위 공여국(기관)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공여주체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비 중
1	세계은행	890	1,022	1,332	1,565	1,794	6,603	30.6%
2	일본	465	568	1,422	1,298	1,256	5,009	23.2%
3	ADB	353	386	362	490	395	1,986	9.2%
4	미국	230	255	279	327	409	1,501	7.0%
5	영국	255	220	226	255	334	1,290	6.0%

자료: OECD.Stats (총지출액 및 명목가격(Current Price) 기준)

- '15~'19년 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 비중은 ▲에너지(15.5%), ▲교육(13.9%), ▲운송·저장(12.7%), ▲보건(7.5%), ▲공공행정(6.9%) 순

<방글라데시 주요 지원분야(2015~19)>

(단위 : 백만 달러)

	에너지	교육	운송저장	보건	공공행정	식수 위생
금액	3,344	3,002	2,747	1,614	1,496	1,222
(%)	15.5%	13.9%	12.7%	7.5%	6.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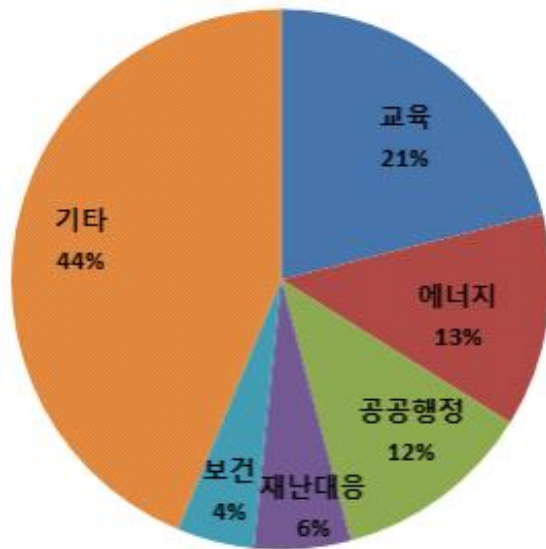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총지출액 및 명목가격(Current Price) 기준)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세계은행) 교육(21%) 분야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에너지(13%), 공공행정(12%), 재난대응(6%), 보건(4%) 분야 순으로 그 뒤를 따름.
 - (일본) 에너지(40%) 및 운송·저장(34%)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였으며, 식수·위생 분야도 8%를 차지
 - (ADB) 교육(33%), 운송·저장(19%), 식수·위생(14%), 에너지(6%)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 긴급지원(22%)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인구 정책(17%), 농수임(15%), 식량지원(14%), 보건(11%), 공공행정(5%) 순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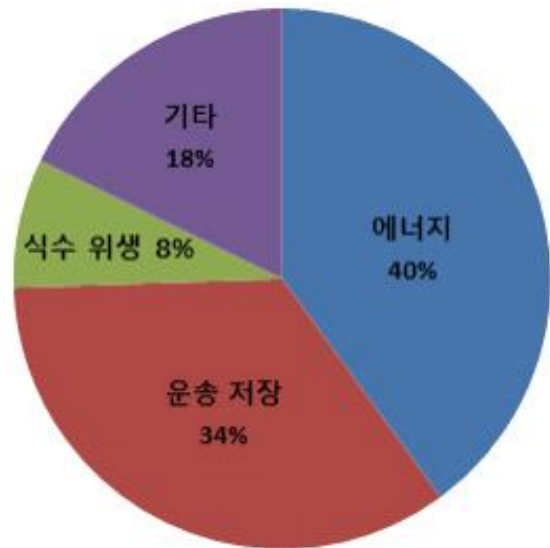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상위 공여국(기관) 지원 추이(2015~1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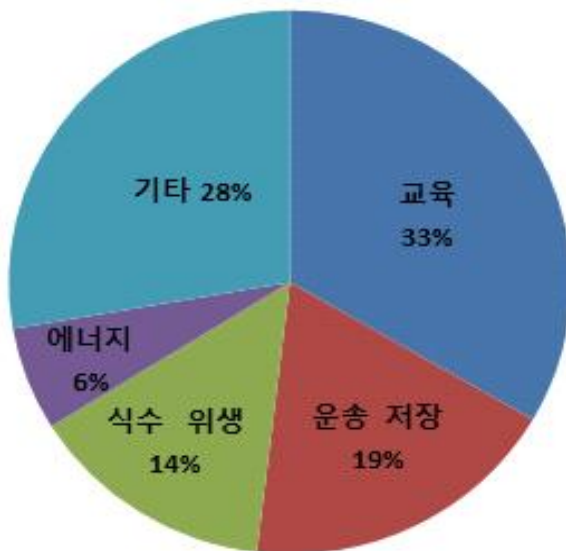
세계은행



일본



ADB



미국

